

16/10/02(주) 주일예배 / 제목 :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계 5:1~14) p. 404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
 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 그 어린 양이 나
 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
 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
 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그들로 우리 하
 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
 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
 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
 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광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5장에서는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앞 장에서 하나님에게 드러졌던 경배와 찬송이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도 똑같이 드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으로서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본론 /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1. 어린 양의 사역 (1~5절)

1절을 보십시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
 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천국의 장면에서 제일 먼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란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를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를 가리키는데, 보

통의 경우와는 달리 그 두루마리 책은 특이하게도 “안팎으로” 즉 양면을 다 채워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록된 내용이 완전하며 충실해서 그 어떤 가감이 조금도 필요 없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은 오자도 흔히 있고 나중에 수정 증보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완벽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것처럼 완전한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비밀로 지키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실로 묶은 후에 그 매듭을 밀랍 등으로 봉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아무나 펼쳐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비밀은 나중에 6장 이하에서 밝혀지듯이 바로 종말에 벌어질 일,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 하나가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극에 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즉 그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고 그 비밀의 내용을 밝히 보여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서도 정말 궁금한 사실이며 점점 더 흥분되고 긴장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 실망스럽게도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당연한 것이, 하늘의 천사든지 이 땅의 그 어떤 위인이든지 간에 피조물로 지음 받은 존재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기는커녕 감히 그 앞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런 현실을 직시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울고 또 울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4장 1절에 보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게 될까봐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십사)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을 달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요한이 결코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두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 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의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요 또한 완벽한 책임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리켜 5절 후반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 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된 책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실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1. 어린 양의 사역 (1~5절)

2. 성도들의 기도 (6~8절)

사도 요한의 눈앞에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의 일곱 인봉을 떼실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생물”은 앞서 4장 6절에도 나오는데 ‘전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는 특별한 영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이란 역시 앞의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이십사 장로들’인데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것으로서 곧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역시 바로 그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의 옹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바로 6절 중간에 있는 대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그리고 명백하게 깨닫게 해 줍니다. 물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전자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상징하고 후자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드디어 그 인봉된 책의 일곱 인들을 떼시기 위하여 나아와서 일단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느” 장면이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것

은 정말이지 굉장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종말의 역사의 비밀이 드러나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장면의 배경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에 그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중에서 “거문고”는 바로 다음 9절에 나오는 ‘새 노래’를 부를 때 함께 사용했던 악기이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계시를 펼치고 선포하시려는 바로 그 자리에 향 연기와 향냄새가 배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향은 다름 아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좌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 그리고 인봉된 계시의 책,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천상 보좌 주위에 유일하게 ‘땅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시점이 아니라, 계시가 펼쳐지려는 그 극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지극히 합당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성도의 기도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 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그 실행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충격적이고도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반면, 성도의 기도는 ‘땅에서 하늘 보좌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1. 어린 양의 사역 (1~5절) 2. 성도들의 기도 (6~8절)

3. 우주적인 찬양 (9~14절)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거문고”의 반주에 맞추어서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서 세 번의 찬송이 나오는데, 각 찬송들이 시작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들이 점점 더 늘어남으로써 아주 장엄한 합창이 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종말의 계시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택자 구속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승리생활하게 된 것을 두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1절과 12절에서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연이어 찬송을 시작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으니 정말 굉장한 규모의 찬양대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천군천사의 초대형 찬양대가 부른 대합창곡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의 찬송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을 두고 찬양한 반면에, 두 번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을 찬양했고,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은 우선 그 합창대의 규모부터가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로, 그야말로 최대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지어다 하니 /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처음에는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의 합창으로 시작된 찬송이 이제는 전 우주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합창에 동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모든 천사들의 찬송과 그 뒤를 이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는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들의 찬송에 마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십사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먼저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입니다. 여기서 “이르되”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 생물은 모든 천사들이 찬송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찬송할 때도 역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찬양대의 찬송이 끝나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한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면, 역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생물도 모든 천사들의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찬송에도 역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십사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우주적 대합창의 가사를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라고 성부와 성자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나라의 대통령들도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직위에 걸맞은 격식을 서로가 갖추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양탄자가 깔리고 삼군 의장대의 사열이 있고 군악대에 연주에 맞추어 ‘받들어 총’ 하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릴 만한, 그 완전한 성자 하나님 되심에 어울릴 만한 어떤 격식을 갖추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을 동원해도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와 권위와 영광에 충분히 어울릴 만한 그 어떤 예우를 갖추 수 있는 길은 전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나오는 ‘찬양’으로써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축포의 소리나 뽀뽀거리는 의장대의 사열 같은 의식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고백되어 나오는 찬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찬송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뜨겁고도 힘찬 찬양을 통해 당신의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 주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요리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천상교회에 올라가서도 영원토

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 지금 천상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어린양의 구속사 계시 사역',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우주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일이 이 지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선포되고 있고, 매일 기도시간마다 '기도의 향'이 저 하늘보좌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으며, 각종 예배 시간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교회'야말로 저 '천상교회'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며 성도는 '세상에 있는 천국 권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등불'을 계속 밝히며 '천사들이 흠모할 찬송'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저 영화로운 천상교회에서 반드시 다시 함께 만나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상교회를 미리 경험합시다.

요약정리 /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1. 어린 양의 사역 (1~5절)
2. 성도들의 기도 (6~8절)
3. 우주적인 찬양 (9~14절)